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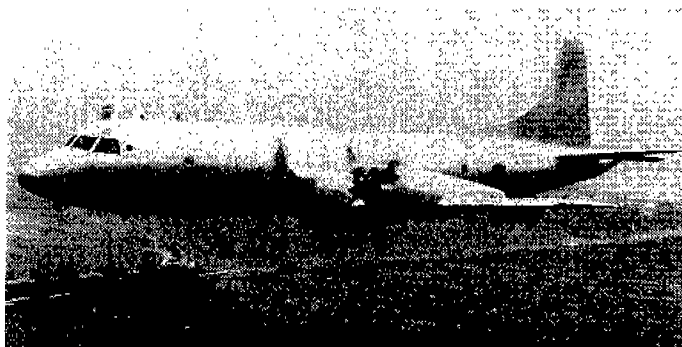
해군, 대잠 초계기 P-3C기 인수

해군은 4월 25일 이양호국방부장관, 김동진합참의장 및 인병태 해군참모총장 등 군 고위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 제6항공전단에서 대잠초계기 P-3C기 인수식을 가졌다.

해군은 지난 91년 미 록히드사로부터 P-3C기 8대를 대당 미화 8천5백만달러에 도입키로 했으며 이번에 먼저 2대가 도입돼 인수식을 가진것으로, 연말까지 6대가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다.

해군은 도입된 P-3C기를 시험운행을 거쳐 곧바로 해상초계임무에 투입시킬 방침인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해군의 대잠작전능력은 질적인 비약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10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는 P-3C기는 수중음파탐지(SONAR), 수중음향 신호분석기, 전자파 탐지기 및 자기탐지기(MAD)등 첨단 전자장비를 탑재해 최대 15시간 체공할 수 있으며 320km에 달하는 수상·수중탐지 및 조기경보능력을 지닌 첨단 대잠 초계기로 현재 미해군이 실전 운용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대잠



한국해군이 최근 도입한 대잠 초계기 P-3C

초계기라는 평을 받고 있다.

P-3C기는 우리 해군이 구입하려 할 당시인 89,90년만 하더라도 제작사인 록히드사가 당초 이보다 작전수행능력이 떨어지는 P-3A나 P-3B를 도입해가도록 배짱을 내밀어 우리측이 프랑스 닷소사의 아틀란틱스(ALT-2)를 매입할 움직임을 보이자 미측이 겨우 P-3C매각에 합의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었다.

국방부가 94년에 발간한 국방백서에는 북한 잠수함은 모두 26척으로 올해까지 우리 해군이 보유한 4척에 비하면 훨씬 위협적인데 북한은 유사시 잠수함과 기뢰를 이용해 미해군의 대한민국 해양 지원을 봉쇄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우리 해군의 중대한 과제의 하나로 지목돼왔다.

해군은 "P-3C기의 도입으로

우리 해군은 대잠수함 작전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아군의 함정 및 잠수함과 의 입체해상작전 능력을 배양하게 돼 수중·수상·항공등 입체전력을 갖춘 대양해군으로의 일보를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P-3C기는 공대함미사일, 어뢰등의 무장능력을 갖추고 있어 유사시엔 비단 대잠작전 뿐만 아니라 적 함정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실제로 미국은 지난 91년 걸프전당시 대이라크 함대전역에 P-3C기를 투입했었다.

한편 P-3C기는 내부를 개조할 경우, 공중 조기경보기 역할도 담당할 수 있는데 군 일각에서는 향후 도입될 P-3C기 가운데 일부를 공중조기경보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조해야한다는 견해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GAO, 스텔스전투기 생산 늦추도록 건의

미군의 무기조달 계획중에서 경비가 가장 많이 드는 사업의 하나인 F-22 스텔스 전투기의 생산을 늦추어야 한다고 의회의 한 보고서가 밝혔다.

회계감사원(GAO)은 4월 21일에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첫 비행시험 및 평가가 끝날때까지 F-22기의 생산계획을 연 32대에서 6~8대로 늦추도록 건의하고 있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F-22의 본격적 생산은 2001년 이후로 4~5년 지연될수 있다.

GAO는 이 보고서에서 "우리의 분석을 근거로 하면 F-22기의 필요성은 시급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GAO보고서의 이러한 소견을 거부했다. 국방부는 조달부의 한 관리인 스피로스 팔라스가 제출한 응답서를 통해 F-22기의 생산지연이 "전체 비용의 증대, 중요한 인력 및 공급자의 상실, 기술면의 노후화를 초래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B-2 폭격기처럼 레이다에 포착되지 않는 능력을 갖도록 설계된 F-22 전투기는 점차 공군의 F-15기를 대체,전쟁시 제공권을

장악할 주요무기가 될 예정이다.

현재의 국방부계획에 따르면 공군은 비행시험이 끝나기 전에 F-22기 80대를 1차로 구매하기로 되어 있으며 그값은 대당 1억5천5백만달러인 1백24억달러로 이 예산은 97년부터 2001년사이에 책정될 전망이다.

미, IAI 무인정찰기 7대 첫 도입

이스라엘의 이스라엘항공산업(IAI)은 최근 미국의 TRW 에비오닉스와 합작 생산한 무인 정찰기 '헌터' 7대를 처음으로 미국에 공급했다고 4월 18일 밝혔다.

이 회사의 한 고위관리는 "이스라엘 방위산업체가 미국에 처음으로 주요 무기시스템을 공급한 것은 앞으로의 양국 관계를 위한 이정표가 되는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스라엘의 한 TV는 헌터기가 상공에서 8시간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적진 1백50KM까지 침투해 비디오를 통한 감시활동을 벌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IAI사는 헌터기를 개발, 지난 93년 6월 미국의 합작생산 파트너인 TWR사와 함께 미국방부측

과 이 무인정찰기 공급을 위한 2억4천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프랑스측도 지난달 이 무인정찰기 5대를 구매하기 위해 회사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항모탐재용 해리어 전투기 도입키로

일본해상자위대는 96년 시작되는 차기 방위력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미국과 영국이 공동개발한 수직이착륙전투기인 '해리어-II 플러스' 기를 도입키로 했다고 도쿄(동경)신문이 28일 보도했다.

해리어-II 플러스 전투기는 영국 BAE사와 미 맥도넬 더글라스사가 기존의 해리어전투기를 개량, 개발한 것으로 일본의 이 전투기 도입은 항공모함 도입을 향한 첫 단계로 보여져 국내외로부터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러시아 공군전투력 크게 퇴보

러시아 공군은 지난 2년 사이 장비의 노후화로 실전에 투입할수 있는 전투기 보유대수가 약

40% 감소, 전투부대의 작전능력이 크게 퇴보했다고 프랑스의 일간 르몽드지가 4월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러시아공군의 미래 전투기 개발예산이 지난 2년의 3분의 2가 줄어들어 미국의 F-22 전투기에 필적하는 미그기와 금년중 취역시킬 예정이던 신형 수호이기의 개발계획을 중도에 포기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공군이 현재의 작전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2백50대의 항공기를 교체할 필요가 있으나 작년에 약30대를 교체한 이후 금년에는 단 1대의 항공기도 교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르몽드는 이어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오는 2005년 러시아공군의 작전용항공기 보유대수는 현재의 20% 수준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말레이시아, 미그기 10대 인수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러시아에 주문한 18대의 미그-29기 가운데 10대를 인수, 동남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러시아 전투기를 보유하게 됐다.

나지브 툰 라자크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은 나머지 8대는 오는 7월 인수할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미그-29기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공군력에 있어 선진국들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정부 관리들은 새로 도입한 이 기종들은 지난 19년동안 사용해온 F-5기종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가 구입하는 미그기는 러시아의 모스크바 항공기 생산기구(MAPO)가 부품을 들여와 말레이시아 동부의 파항주에서 조립생산하며 가격은 대당 3억8천1백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관학교 여성입학 허용

그동안 금지되었던 사관학교의 여성 입학이 허용된다.

국방부는 4월 11일 이런 방침을 최종 확정하고 우선 공군사관학교가 오는 97학년도에 20명 정도의 여성생도를 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공사에서 실시한 여성생도의 모집·교육·내무생활·훈육 등을 분석해 육사·해사의 여성생도 선발 여부를 결정

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공사를 졸업한 여성장교들을 현실적으로 곤란한 전투기 조종사를 제외하고 수송기·헬리콥터 조종사, 항공관제, 행정장교 등의 요원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육사·해사의 여성생도 선발 여부는 격오지 근무(육군), 함상 근무(해군) 등 여성 장교들의 근무환경면에서 제하요인이 있어 추후에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기구독안내

본 항공우주지는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기반 확충과 대중적 이해의 확산을 위해 정기구독을 원하는 분에게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편료 정도의 부담으로 1년 이상 구독을 원하는 분은 기획과로 신청해 주십시오.

(전화: 761-1104 · FAX: 761-1175)